

'10% 특별할인' 군산사랑상품권 한달새 1000억 완판



공공배달업 '배달의 명수' 연계효과 21일부터 다시 8% 할인을 적용 2000억원 규모 소진때까지 판매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이 발행 한 달 여만에 1000억원어치가 팔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군산시민의 공동체 의식과 공공배달업 '배달의 명수'의 연계 효과가 주요했다 분석이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0% 할인을 적용한 1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이 모두 소진됐다. 지난달 6일 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이

다. 군산시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1000억원(모바일 200억원, 종이 8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했다. 구매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인기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군산시 공공배달업인 '배달의 명수' 연계 사용 등 군산시의 적극적인 상품권 유통 기반 조성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1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할인 폭을 원래의 8%로 환원해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1인당 월 구매해도 70만원으로 하향한다. 할인율 8%는 올해 남아

있는 2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군산사랑상품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2018년 910억원, 2019년 4000억원을 발행했으며, 올해 발행액 4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이 유통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다 보니 2%포인트 차이에도 시민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면서 "21일부터 상품권 할인율이 8%로 하향되지만 시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준비 중인 만큼 많이 사용돼달라"고 말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사회단체·기업 20곳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정읍새일센터는 지난 13일 지역의 사회단체와 기업체 등과 함께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사회단체와 기업은 ㈜겨성중공업, 정읍로컬사업단, ㈜디에스판넬, 예뵤엠학습코칭센터, ㈜큰사람아카데미, ㈜다원에프에스, 대경직물, 대성스크린, 모던텍,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읍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지역활성화연구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등 총 20곳이다.

이번 협약은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여성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일자리 창출, 고용양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사회단체와 기업체는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인력 채용,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실현 등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센터에서는 여성 인턴 연계와 환경개선 지원, 취업상담사의 전담기업 관리,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발급 등에 나선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내장산 우화정.

고창 황토배기 수박·복분자 선연 10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엄격한 품질관리 호평



고창의 명품 농특산물인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연'이 10여년간 국가 대표 브랜드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고창군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수박과 복분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사진>

황토배기 수박은 11년 연속, 복분자 선연은 10년 연속 대상 수상의 대업을 이뤘다.

황토배기 수박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핵가족 증가에 대응하는 소과(小果) 형태의 수박을 출시하는 등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

복분자 선연은 지리적표시제 등록, 생산이력제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 노력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해당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경영 성과 등을 기준으로 부문별 후보 브랜드를 선정했다.

특히 18일동안 국내 소비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을 항목으로 하는 온라인 소비자 조사와 브랜드 전문가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100 l 당 1만원...고창군, 해양쓰레기 수매 시작

수협과 연말까지 6700만원 투입 환경정화·어업인 소득창출 기대

고창군이 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사들인다.

고창군은 고창군수협과 계약을 맺고 연말까지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창군은 청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 100l 이상을 수거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6700만원이 투입된다. 수매 쓰레기는 조업 중 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 어구 등이다.

수매 단가는 마대 100 l 당 1만원이며, 연안 통발은 개당 250원이다.



고창군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수매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리 면 광습집하장에서 진행한다. 해경에서 발급하는

어선 입출항 확인서 대장과 수협의 어선 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한 후 통장으로 입금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업인에게는 적절한 보상금이 주어질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해양 환경 정화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에 '다다(多多)익산'

'역사·문화·숲 어우러진 열린 청사'

익산시는 내년에 착공하는 신청사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多多(다다)익산' <사진>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품은 '익산의 역사와 문화, 숲이 어우러진 열린 청사'를 지향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열린 청사를 바탕으로 '자연을 품고 시민과 소통하는 풍경의 숲터', '시민 공간 중심의 열린 커뮤니티의 장', '백제 고도의 미륵사지 석탑을 담은 미래 역사의 관문'이라는 테마를 공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하 2층, 지상 9층, 전체 건물면적 3만8953㎡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다목적용, 시민 회의실, 도서관 등을 갖춘다.

아외에는 어울림마당, 숲속공원, 시민정원, 사계정원, 가족마당 등의 시민 쉼터를 조성한다.

익산시는 당선작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해 내년 초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3년 완공된다.

신청사 건립은 1970년 지어진 현재의 청사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추진됐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민 내장산 입장료 무료

순창군민들은 국립공원 내장산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게 됐다.

14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주지 지태스님) 원로 스님인 대우스님과 순창 북흥면 구암사 지공스님이 군수실을 방문해 이 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구암사 지공스님이 내장사를 지속해서 설득하고, 내장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순창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순창군 북흥면 일부가 국립공원 내장산구역에 속해 있는 것도 고려됐다.

통상적으로 국립공원은 입장료는 없지만,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나 시설에서 문화재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내장사에서 징수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재 입장료는 일반 3000원, 종교생 1200원, 초등학교생 700원이다.

순창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내장산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게 됐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